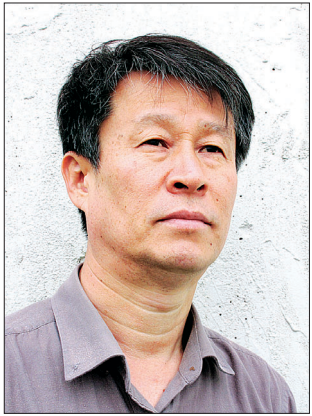


# “법정 스님께 불교의 방향 묻고 싶었죠”

‘김호석-물다’ 전 6월 8일까지 종로구 시간동 갤러리GMA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잖아요. 지금의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혼탁한 시기에 법정 스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지요.”

‘김호석-물다’ 전이 6월 8일까지 종로구 시간동 갤러리GMA에서 열린다. 김호석 작가(사진)는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을 오랜 기간 연구해 현대적으로 계승, 국내 인물 초상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현장과 현실에 바탕을 둔 수묵운동에 참여 역사화, 농촌풍

경화, 가족화, 군중화, 동물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확장시켜 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법정 스님의 진영과 의자,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을 통해서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는다. “김상사의 요청으로 스님의 표준 진영을 그리게 됐어요. 작업을 하다보니 스님에게 묻고 싶은 말들이 생겼어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고 말이지요. 스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안 계시지만 이 시대의 선각자이시고 아직까지도 불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시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것만 같았어요.”

스님이 벗은 놓은 옷을 그려낸 ‘땀’은 껌데기만 남은 이 시대 불교 정신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을 담아낸다. “무심하고 소박한 듯 보이지만 이 낡은 옷을 통해 스님에게 불교의 정신과 미학에 대해 논쟁을 하고 싶었어요. 참선을 마치고 가볍게 일어난 뒤 자리에 남겨진 또 다른 스님을 만나고 있는 지도 모르죠.”

불일암 앞에 남겨진 배추 한포기를 그려낸 ‘불일암’ 역시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면으로 향하려는 가르침을 준다. “무소유를 말씀하신 스님께서는 농사를 지어 항상 먹을 만큼만 김장을 하고 밭에 남은 배추를 쪼

으로 써서 그대로 두셨어요. 겉은 생명이 말라있지만 내면에는 온기가 살아있는 이 또한 생명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께서는 내면에 눈을 돌리고 남과 또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배추가 곧 법정 스님입니다.”

“이제는 의자가 쉬자”는 법정 스님이 서둘러 만들어 늘 쉬고 있던 낡은 의자를 그렸다. 이제는 불일암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의자’에 앉아 스님을 만나고자 한다. 하지만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의

“이 혼탁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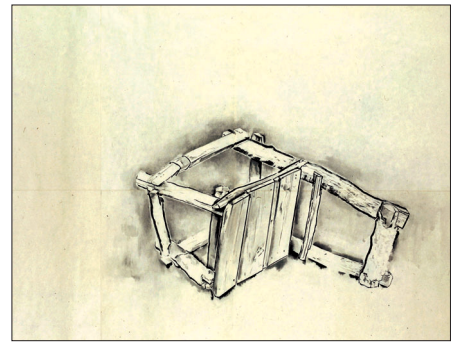
스님 진영과 사물 통해 불교의 과제 고민

자를 넣어 놓았다. 스님이 떠난 뒤 의자를 쉬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작가는 쉬고 있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만나고 싶었던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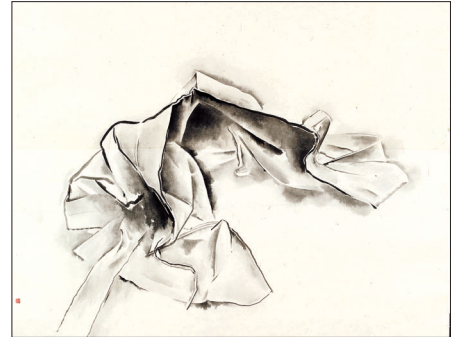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사물을 빌어 세상을 말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깨우침을 준다. 큰 화면에 머리만 남은 대구가 서로를 물고 뜯고



‘김호석-물다’ 전이 6월 8일까지 종로구 시간동 갤러리GMA에서 열린다. 법정 스님의 진영.



‘이제는 의자가 쉬자’



스님이 벗은 놓은 옷을 그려낸 ‘땀’

있는 ‘불이’는 몸은 하나로 2가지의 표정이 흥미롭다. 인간의 이중적 가치와 표정, 사악함과 온화함의 양면성은 서로를 물어뜯는다는 경고임에 분명하다. ‘거울 앞에서’는 자신을 보면서 허물을 보고 반성하면서 맑은 얼굴로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법정 스님은 불일암에서 홀로 수행하신 독거 수좌시절이요, 눈빛이 강하고 쉬어서 살기 싫어하셨고 또 혼탁한 걸 싫어하셨어요. 이런 스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가르쳐 주고 떠나셨죠. 이제 우리는 스님의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법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가는 법정 스님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 그리고 작가는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내면에 불교 정신이 살아 있느냐고? 혼탁한 세상에 불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고? (02)725-004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한지로 불교문화 우수성 알려나가요”

국제 한지미술전 연 영담 스님

“동서양의 현대작가들이 ‘영담한지’라는 특수한 재료를 만나 표현한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각 나라의 작가들이 한지의 독특한 질감과 특성을 만나 조심스럽게 접근한 실험적, 심리적, 예술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에불, 천년의 탑 등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이 5월 15~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 전시는 35년째 전통종이연구와 닥섬유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담 스님(영담한지미술관 관장)이 만든 한지를 국내외 작가들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제가 만든 닥종이로 작업한 국내외의 현대작가들이 함께하는 합동전입니다. 지난 2011년 워싱턴에서 전시를 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이후 국내외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죠. 지난해부터 국제전 참가 작가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종이를 제공하고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이 5월 15~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영담 스님은 자신이 만든 한지를 참여작가들에게 제공했다.

제공한 것이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입니다.”

한국작가로는 이영, 이흥원, 박대성, 한정오, 전수민, 김호연(동국대 교수), 영담 스님이 참여했고 미국작가로는 제프 워링, 존 웨빅, 미셸 리, 린 캠벨, 피터 키니가 함께했다. 독일작가로는 마그레트 파이프, 지바라 스타렐파이어, 현희 휘서가 이태리에서는 한스 요한나, 중국작가 박학성 등 21명이 참여했다.

스님은 한지의 세계화는 불교문화의 세계화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종이의 역

사는 절집에서 스님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를 이어 간행된 수많은 전적과 경전, 사경품과 시서화를 통한 예술로 남아있죠. 오늘날에는 몇몇 스님들에 의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한지의 세계화는 결국 또다른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말한다고 봐요. 한지의 역사와 특성과 물성에 질게 배어있는 불교문화에 이해하는 서양의 현대작가들이 많이 질수록 한국불교의 문화적 우수성은 널리 알려질 것이니까요.” 정혜숙 기자

## CD로 듣는 대강백 탄허 스님 육성 법문

도서출판 교림, ‘동양사상’ 특강 CD 재편집

유·불·선에 정통했던 선지식 탄허 스님(1913~1983)의 육성 법문을 CD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교림(대표 서우담)은 탄허 스님이 1977, 1982년 동양사상과 현대철학, 화엄경 등의 특강내용을 CD 18장에 담아 발매중이다.

탄허 스님 특강의 재편집 및 CD제작은 스님의 속가제자 중 한 분인 명호군 전 상용회장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CD는 당시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에서 재편집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목차와 내용 등을 수록한 교재도 첨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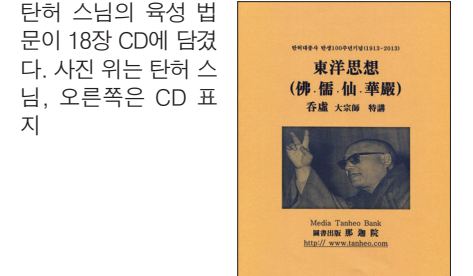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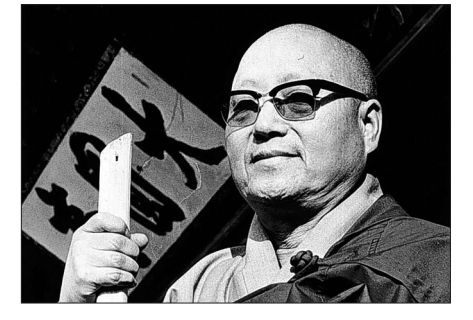
CD 특강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방대하다. 현대철학의 이상론, 본체론과 공자, 맹자, 왕양명 등 유가, 노자와 장자 등 도가, 묵자?음양가?법가 등 백가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 주역과 천부경, 요순 시대의 교훈과 군자의 도에 대해서도 스님은 강의했다.

탄허 스님의 특강은 대학원 수료자와 사서삼경을 터득한 자, 승가대학에서 대교과를 마친 스님, 10만여를 섬긴 스님이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수준이 높았고, 이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80여 명의 출·재가자가 모여들었다.

서우담 도서출판 교림 대표는 “탄허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강했던 내용을 재편집 수정해 CD로 제작했다”며 “특강 카세트 테이프를 녹취해 한문원전으로 차례를 만들고 정취에 편의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평생을 역경사업에 바친 대강백이었던 탄허 스님은 생전 자정에 일어나 새벽까지 참선하고 온 종일 《화엄경》과 《유조단경》 등 불전을 번역했다. 당대의 대학자였던 양주동 박사가 탄허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듣고 탄복해 넘적 절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함석헌 선생도 탄허 스님에게 장자를 배웠고 현재 불교계 최고의 강백으로 꼽히는



각성·무비·허게 스님과 강남 능인선원 지광 스님 등도 탄허 스님 문화에서 수학했다.

CD집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도서출판 교림으로 하면 된다. (02)733-3334, www.tanheo.com 신성민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